

특수의복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 한국과 미국의 교과과정과 연구경향분석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Curriculum and Research Trends Related to Clothing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between Korea and America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전임강사 김 찬 주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cheon Univ.
Full-time Instructor; **Chanju Kim**

< 목 차 >

I. 서 론	IV. 결과 및 논의
II. 용어설정 및 분류	V. 결 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clothing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as one of new directions in Clothing and Textiles,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current curriculum and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is field between Korea and Americ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5 Korean colleges with Clothing and Textiles department and 4 American colleges known for special clothing study. Questions regarded the name of course, level (grade), number of credit hours, prerequisites and supporting courses, subjects of lecture and projects, way of managing lecture and projects, evaluation system, other special characteristics. Resources for analyzing research trends are Thesis and Dissertations i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of Clothing & Textiles/Home Economics Association, College Professors' research reports collection, of both Korea and America. Years of publications are 1972~1986 (America), 1978~1988 (Korea). Findings are as follows;

1. Clothing for special needs can be classified into various groups; Clothing for physically handicapped, mentally retarded, elderly, unusual-sized, pregnant/nursing mothers, institutionalized, protective clothing, uniform/career apparel.

2. Management of coursework related to special clothing has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specially in America; Building-up coursework, problem-solving orientation, cooperative team-project, interdisciplinary approach, client-versus-designer preference, community involvement. In Korea, a few school only has special clothing coursework and

its scope of study was very limited.

3. Majority of research reports done with the subjects of special clothing had made for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and the elderly. Protective clothing and uniform have recently been paid much interests.

4. Researchers had mainly concerned on Design and Construction Aspects and nextly on social-psychological aspects. However, in America, selection and care aspects and marketing aspects of special clothing have been very productive issues recently.

5. Study on clothing for special needs has several opportunities to be stressed and improvements to be strengthened. Opportunities included active participation to the welfare of community society, strong publicity of accurate professional image, share with business and industry,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new job market. Improvemen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strengthening supporting courses/prerequisites, intensifying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provoking strong community involvement and securing financial support and research funds.

I. 서 론

지난 수 십년동안 가정학자들은 가정학의 현 위치를 규명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정학자인 Horn¹⁾은 가정학의 한 분야로서 의류학이 점차 다양해지는 개인과 가정으로부터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 주된 가능성중의 하나로서 특수 의복 즉 신체장애자들이나 그 밖의 다른 특수한 요구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Rudd²⁾는 의류학의 교과과정의 최근 경향과 미래의 진로를 분석한 논문을 통해 이러한 특수요구사항을 가진 집단들을 위한 의복설계와 관련된 과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최근 의류학 교과과정 변화의 한 추세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Rudd에 의하면 특수 의복에 관련된 과목들은 신체장애자와 같은 특수집단을 위한 의복구성 뿐 아니라 기능적인 디자인(Functional Design)과 이들 의복을 착용하는 소비자들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Rudd의 조사에 응한 의류학과의 교수진들과 행정가들은 특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의류학에 있어 하나의 큰 강점내지는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김재숙³⁾은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현대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응용과학인 의류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변화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의류학 교육과정에서는 상품으로서의 의복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장애자·노인을 위한 기능복, Energy 절약을 위한 효율적 의복,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복의 안정성 등이 중시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실의 교육에 있어 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 각 대학 의복구성분야를 중심으로 특수 집단들을 위한 의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의류학에 있어 특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현 사회의 사회적·교육적 추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한 변화로 보여진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들 특수집단들에 대한 관심 및 대중의 인식이 크고 이들을 도우려는 사회적 자각과 책임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⁴⁾. 동시에 직업의 다양화와 역할의 세분화는 주된 사회적 추세이다. 나아가 이 추이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상품들의 기능적 면들을 개선시키는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전문교육기관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service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사회적기관이므로 사회의 추이와 요구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그 책임이행 내지는 변화에 부응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 미래의 의류학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특수집단을 위한 의복연구가 교육적·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특수의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의류학교육 및 연구경향을 분석·규명하여 새로운 분야로서의 그 전망을 모색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i) 특수의를 위한 현재의 교과과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ii) 특수의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iii) 특수의를 연구가 지닌 장점(Opportunities)과 개선점(Improvements)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함께 조사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수의를 위한 연구가 일찍부터 성행되어 온 미국의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수의를 위한 방향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II. 용어설정 및 분류

특수의복, 즉 특수한 요구를 가진 집단을 위한 의복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나누어 볼 때

①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룹 즉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아,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복.

② 결함은 아니나(정상인이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수반하는 그룹 즉 노년기, 임신부, 수유부, 비만체형, 죄수들을 위한 의복.

③ 활동하는 환경이 특수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작업복, 제복(Uniform), 우주선원복(Space-suits), 운동애호가를 위한 각종 운동복, 각종 산업용·방호용 의복등 이 밖에도 의복설계시 어떤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우는 모두 특수의를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때때로 기능복(Functional Cloth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 특수집단을 위한 의복들의 가장 공통되고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기능성(Functionality)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조사 및 관련된 문헌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육적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의류학과(의상학과, 의류직물학과, 의생활학과, 의상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25개 대학(5개의 전문대학교 포함)에 설문지를 보내어* 특수의를 다루는 교과목 개설의 유무, 교과목명, 개설학년, 학점(시간)수, 선수과목 및 협동과목, 강의 및 과제물의 내용과 진행방법, 평가방법 및 특기사항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의류학계통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을 1차 조사하여 그중 특수의를 위한 과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인정된 대학(2개의 대학원 포함)을 선택하여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그들은 Cornell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University of Houst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4개 대학이었다. 배부 및 회수의 기간은 1989년 1월부터 4월까지였다.

연구경향에 관하여는 국내의 경우 각 대학의 의류학 계열로 발표된 학위논문들과 한국의류학회지(1978~1988), 대한가정학회지(1978~1988), 각 대학 교수들의 연구논문집들을 조사·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각 대학 석사·박사학위논문발행체록(Thesis and Dissertation Abstracts: 1972~1986), 의류학계열학과 교수들의 연구논문 발표지인 ACP-TC (American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 Clothing) Proceedings (1972~1985),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2~1986),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2~1986)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전화로 확인·보충하였다.

**학위논문들과 교수연구논문집은 서울소재의 대학에 한하였음을 밝힌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named Clothing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shortly "Special Clothing") in Korea.

학교명/대학/과	학년	과목명	학점 (시간수)	선수과목 (협동과목)	수업진행방식	수업내용및 평가방법
덕성여자대학교 예술학부 의상학과	3 4	패션디자인 패션스튜디오	2(4) 3(4)	드레이핑 인간공학 복사사회심리	이론및 실습 그룹프로젝트	기초디자인조사 및 portfolio작성 (주로 스포츠웨어/아동복) portfolio발표
한성대학 의상학과	3	특수복식	3(3)	의복구성 드레이핑	강의및 실습, 그룹프로젝트	부대의상 중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박사 과정	특수의복설계	3(3)	의복구성 드레이핑	이론및 실습	임신부체형변화의 의복설계, 작업의 종류에 따른 의복설계 운동의 종류에 따른 의복설계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복설계등

IV. 결과 및 논의

IV-1. 교과과정

(1) 국 내

설문지에 응해온 20여개의 서울·경기지방의 의류 학계열의 학과들중 특수의를복을 주제로 하는 과목이 개설된 곳은 불과 3곳이었다(서울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이들 교과목의 성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교과과정의 공통점은 선수 및 협동과목으로 평면재단과 드레이핑등 의복구성능력을 필요로 하고 프로젝트중심으로(학부에서는 그룹단위 선호)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공학과 복사사회심리학을 선수과목으로 요구한 대학도 있었는데, 이는 특수한 신체구조나 환경을 가진 집단을 위해 의복을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디자인·제작하기 위해서는 복식이 사회심리적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간에 대한 공학적인 연구가 이론적배경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다양한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를 가지고 의복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연구의

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현상으로 보인다.

(2) 미 국

미국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과정 뿐 아니라 특별활동으로서 fashion show, workshop,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제공되는 extension program 등이 있다. 각 대학이 응답한 바 특수의복에 관한 교과과정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우선 한국에 비해 협동과목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다. 즉 인체계측학(Anthropometrics), 인체해부학(Human anatomy), 인간공학(Ergonomics), 각도학(Goniometrics)등 의복을 과학적 시각과 이론위에서 설계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의내용이나 프로젝트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Thermal protection, Impact protection, mobility등 산업사회의 여러 특수환경을 고려한 이론들이 다루어지고, 이를 응용한 각 종의 신체보호용 의복(i.e., Fire fighters', Scuba divers', Space Suits)과 장애자를 위한 의복들이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프로젝트발표 및 평가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3개의 대학(Cornell, Houston, Drexel)이 같은 형식을 채용하고 있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교수는 물론 정부, 산업체, 기업, 일반 연구기관, 재활원등 관련기구의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에 대해 그들로부터 Feedback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조언이나 평가를 받게 된다. 흥미있는 것은 Drexel 대학의 경우 학

*몇개의 대학은 특수의를복구성의 명칭으로 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나 그 다루는 실제내용은 일반의를복구성의 고급단계 즉 Tailoring이나 특수소재를 이용한 의복구성 등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특수의를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regarding Special Clothing
<America>

School	Course Title	level	Cr (hr)	Prerequisites/ Supporting Courses	Lectures/Projects	Evaluation	Strengths
Cornell University	Apparel Design IV "The Theory of Functional Clothing"	Apparel Design Sequence I, II, III, IV (undergraduates)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requisites; Basic Sewing Skills, Pattern alteration, Draping, Textiles Supporting C; Anthropometrics, psychology, physics, soci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rmal protection, Impact protection, mobility and theories in designing clothes strong emphasis on materials Projects; Firefighters' Scuba divers', athletes', handicapped children'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itique session; Presentation of Final Projects to the experts from industry, government and academia provide expert feedback not possibly duplicable on campus stimulate with \$1,000 grant awarded by industry 	*
University of Houston	Functional Clothing I & II	undergraduates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requisites; Flat pattern alteration, Draping, Tailoring, Textiles Supporting C; Anthropometrics, Ergonomics, Goniometrics, Psychology, Business, Visual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ctures; Protective and Functional attributes of clothing for persons in special environment. (i.e. Thermal Protection, waste management system, Flammability protection) Team-Project oriented Projects; medical garment for a burn patient, blouse for a nursing mother, wet-weight scuba suit, light-weight weather shelter for the wheelchair b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sentation of final project to a team of judges from business, academia and governmental agencies. Use NASA model for system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Define objectives b. Establish requirements c. Postulate Concepts d. Analyze Concepts e. Fabricate Prototype f. Test g. Release h. Monitor Response i. Impro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arn techniques involved in system engineering analysis Gain cost-minded attitude for marketability

Drexel University	Fashion Design D "Design with Limits"	Fashion Design Sequence A, B, C, D (Graduate)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requisites; Basic design/Construction, textiles Supporting C; Human Anat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ject-oriented Develop a lot of prototypes in studio within one of other limits of design, production time, cost or materials Final project; fashion show with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mod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sentation (fashion show) to faculty member and the related staff member in rehabilitation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tablish a retail outlet of clothing for the handicappe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Clothing for the Elderly and the Handicapped	graduate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requisites; Theories of dress and adornment, Socio-Cultural aspects of western dress Supporting C; Sociology, Psychology, Econom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cture-Oriented Lecture topic: Clothing needs for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and theories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economics as applied to cloth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itten-test term paper and its presentation 	

* 지면관계상 본문 중에서 논하였음

생들의 작품을 직접 상품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점이다. 학생들에게 실제 작업시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작시간, 경비, 소재의 한정을 두는 등 작품의 경제성을 체감케 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로 제작된 작품들의 실제 판매 방법을 강구하도록 유도되기도 한다. 신체장애자들을 위해 제작된 특수 의복들이 재활원이나 병원안에 마련된 조그만 boutique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조사에 응한 의류학과의 교수진들은 특수 의복 교과 과정이 갖는 특성 내지는 특기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공동적으로 열거하였다(순위없음) : Building-Up Coursework, Problem-Solving Orientation, Cooperative team-project, interdisciplinary approach, client-versus-designer preference, community involvement이다. 이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계열 과목들의 종합적 구성(Building-Up Course work) : Apparel Design 또는 Fashion Design으로 명명되어진 특수 의복 과목들은 Design 이나 구성 계열의 마지막 과목으로서 Design 이론, Drawing, Tailoring, Draping, Flat-pattern making, textiles 등의 기초이론 및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는 단계이다.

② 문제 해결의 목적(Problem-Solving orientation) : 특수 의복을 다루는 과목의 기본 목적은 단순히 의복을 디자인하거나 만드는 것을 지나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복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 수행 및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③ 협력적 그룹 프로젝트(Cooperative Team-Project) : 학생들은 team 단위로 작업함에 따라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④ 다른 학문과의 공동 연구에 의한 접근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 : 특수 의복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최신의 이론들과 재료·도구 및 정

보들을 얻기 위하여 강의와 프로젝트 운영을 다른 분야와의 협동(interdisciplinary) 또는 여러 분야와의 공동작업(multidisciplinary)으로 행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협동과목으로는 인체계측학(Anthropometrics), 물리학(기계학),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인간공학, 경영학이다. 특히 인체계측학, 인간공학, 기계학은 의류학에 있어 협동과목으로서의 역사가 짧는데 비해 기능적 의복의 주된 요구사항인 Fitting과 Comfort를 추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⁸⁾.

⑤ 고객 대 디자이너의 입장 선호(Client-versus-Designer Preference) : 프로젝트의 제작을 위해 학생들을 우선 실제 활동장면 속에서 자신의 의복 제작 대상인 고객(Client)을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고객이 가진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고 그 문제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디자인 제작상의 제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훈련과정이다. 이 훈련을 통해 졸업 후 학생들은 특수 의복 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게 된다.

⑤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일반 대중을 비롯하여 그 지역사회의 여러 관련기관들 즉 교육기관, 정부부서 산업체, 기업, 병원, 재활원, 양로원, 각종 서비스집단, 지방언론들이 학생들의 프로젝트 제작과정에 있어서의 협조와 평가 그리고 재정적 후원을 통해 특수 의복을 다루는 교과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그 의의 및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IV-2. 연구경향

특수의복은 주제로 하여 행해지고 있는 연구경향에 대하여는 연구대상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연구대상에 의한 분류

(1) 국 내

국내에서 발표된 특수 의복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연구대상에 따라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질 수 있었으며 그 구체적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i)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의복(Clothing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 Wheel chair 사용자, 뇌성마비자, 일반적 신체장애자.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에서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학원 과목으로 주로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ii) 노인들을 위한 의복(Clothing for the Elderly) : 노년기 여성을 위한 각종 원형제도 연구, 의복관심, 의복행동 등.
- iii) 특이 체형을 위한 의복(Clothing for the Unusual sized) : 비만체형을 위한 원형연구
- iv) 임신부/수유부를 위한 의복(Clothing for the pregnant/Nursing Mothers) : 임신부를 위한 원형연구.
- v) 제복/직업복(Uniform/Career Apparel) : 소아병동의 uniform, uniform 수용정도와 직업만족도와와의 관계, 시내버스 차장의 근무복 등.
- vi) 방호용의복(Protective Clothing) : 농약살포시 착용하는 방호복, 농촌부녀자의 작업복, 태권도복, 검도복 등.

(2) 미 국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6가지 분야 외에 정신박약아를 위한 의복(C. for Mentally Retarded)과 죄수들을 위한 의복(C. for institution alized)의 2분야가 더 첨가될 수 있었고 각 분야에 따라 행해지는 대상들도 매우 다양하였다.

- i) Clothing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 일 반적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맹인, 뇌성마비, 하반신불수, 척추장애자, Wheel chair 사용자, 관절염환자, 유방암환자 등.
- ii) Clothing for the Mentally Retarded : 정신박약아, 각종 정신질환(예를 들어 우울증, 노이로제, 자폐증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
- iii) Clothing for the Elderly : 65세 이상 또는 은퇴한 노인들.
- iv) Clothing for the Unusual Sized : 비만체형, 키가 남달리 큰 사람, 난장이 등.
- v) Clothing for Pregnant/Nursing Mothers :

임산부 및 수유부.

- vi) Uniform/Career Apparel : Business Dress, 은행원, 경찰관, 수의사, 간호원, 변호사, 경마장의 기사등.
- vii) Protective Clothing : 우주 선원, Scuba diver, ice hockey 선수, 마라톤 경주자, 소방원, 광부, 육상선수, 수영선수, 수상안정요원, 배구선수, 해충방지복, liquid cooling/heating, 방사능처리 실험실 연구원 등.

각 대상별 연구논문의 비율은 Table 3과 같다. 먼저 미국과 한국 공통으로 노인(30% 한국/22.6% 미국)과 신체장애자(20% 한국/29.8% 미국)들을 위한 의복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노인과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60년과 70년대에 신체장애들과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되었다⁹⁾. 특히 취직에 있어 이들에게 정상인과 같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을 설립한 사실은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불어 넣어주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증가시켰다. Hoffman¹⁰⁾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감(Self-Confidence) 즉 기능적이고 목적에 맞으며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수용감과 행복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들 신체장애자나 노인들을 위한 의복연구가 매우 가치있고 필요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

다음 순위로서 각종 작업복이나 제복 그밖의 보호용 의복(16.7% 한국/12.2% 미국)들에 대한 관심도도 미국과 한국 모두 비중이 높았다. 이는 비교적 새로운 연구대상으로서(198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함)

Table 3. Proportions of research interests in clothing for special needs

	Physically Handicapped	Mentally Retarded	Elderly	Unusual Sized	Pregnant/Nursing	Institutionalized	Protective Clothing	Uniform Career apparel	Total
Korea (N=30) (%)	6 (20.0)	.	9 (30.0)	3 (10.0)	2 (6.6)	.	5 (16.7)	5 (16.7)	30 (100)
America (N=181) (%)	54 (29.8)	12 (6.6)	41 (22.6)	12 (6.6)	6 (3.3)	6 (3.3)	22 (12.2)	28 (15.5)	181 (100)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점차 커짐에 따라 최근 이에 대한 각종 연구가 실제 산업현장과 연결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 여가선용을 위해 운동을 즐기는 전문적 운동애호가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시 신체보호 및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인간공학적인 연구가 의복설계에 응용되는 등¹¹⁾ 그 발전의 범위가 넓다고 보여진다.

그 밖에 정신박약아나 정신질환자, 특이체형의 소유자, 임산부들은 그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죄수들을 위한 의복연구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제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연구주제에 의한 분류

연구자료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특수의복에 관한 연구들은 6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었다.

- i) 디자인 및 구성 (Design Construction Aspects) ; Style, Silhouette, Sizing, 색 직물, 원형 (pattern), 봉제, 부속품들, Fit, Comfort.
- ii) 선택 및 관리 (Selection/Care) ; 선택, 구매형

태, 세탁법, 보관법, press.

- iii) 사회심림 (Socio-Psychological Aspects) ; 의복에 대한 가치관, 관심, 선호도, 만족도, 의복의 상징성, 의복규범등.
- iv) 상품판매 (Marketing Aspects) ; 상품판매촉진 (Merchandising), 판매기구 및 서비스 제공 (Market facilities and Services) 배달제도 (Delivery System).
- v) 교육 (Educational Aspects) ; 교육방법 및 교육기재개발, extention services, 성인교육.
- vi) 외모를 통한 성격교정 ; 프로그램 (Appearance Therapy Program).

이들 연구주제에 의한 분류를 정리하면 Table 4 Table 5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 의복연구는 디자인 및 의복구성을 주제로 한 것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디자인 및 의복구성의 주제에 치중함은 특히 방호용 의복 (77.3%),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복 (50%)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의복 (50%), 특이체형 (41.7%) 등에 현저하였다. 이것은 특수의복을 주제로 하는 교과과정이 주로 디자인 및 구성계열과목들의 종합·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rends in Clothing For Special Needs

							〈Korea〉
	Physically Handicapped (N=6)	Elderly (N=9)	Unusual Sized (N=3)	Pregnant Nursing (N=2)	Uniform Career apparel (N=5)	Protective clothing (N=5)	Total (N=30)
DC*	5	6	3	2	2	5	23 (76.7)%
SC							
SP	1	3			3		7 (23.3)%
M							
E							
AT							

*DC: Design/Construction Aspect M: Marketing Aspect
 SC: Selection/Care Aspect E: Educational Aspect
 SP: Socio-Psychological Aspect AT: Appearance Therapy Program

**N의 수가 너무 작아 각 집단별 백분율 (%) 환산은 해석에 무리가 따르므로 하지 않았음

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rends in Clothing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America)

	Physically Handicapped (N=54)	Mentally Retarded (N=12)	Elderly (N=41)	Unusual Sized (N=12)	Pregnant/Nursing (N=6)	Institutionalized (N=6)	Protective clothing (N=22)	Career Apparel (N=28)	Total (N=181)
DC*	27 (50.0)	3 (25.0)	11 (26.8)	5 (41.7)	3 (50.0)		17 (77.3)	10 (35.7)	76 (42.0)
SC	4 (7.4)	2 (16.7)	4 (9.7)	2 (16.7)	1 (16.7)	3 (50.0)	3 (13.6)	4 (14.3)	23 (12.6)
SP	8 (14.8)	2 (16.7)	13 (31.7)	3 (25.0)	2 (33.3)		2 (9.1)	13 (46.4)	43 (23.8)
M	4 (7.4)		10 (24.4)	2 (16.6)					16 (8.9)
E	11 (20.4)	2 (16.6)	3 (7.3)					1 (3.6)	17 (9.4)
AT		3 (25.0)				3 (50.0)			6 (3.3)

*DC: Design/Construction Aspect

M: Marketing Aspect

SC: Selection/Care Aspect

E: Educational Aspect

SP: Socio-Psychological Aspect

AT: Appearance Therapy Program

응용 단계에 있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의복연구의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바인데, 특수 의복의 경우에도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창작동기로서, 또한 마케팅 및 교육방법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착용자의 의복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착용자의 의복행동연구는 의복에 대한 가치관, 관심, 만족도, 선호경향, 의복규범 및 상징에 대한 인식등을 주제로 대상자의 자아개념,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및 역할들과 관련지어 행해지고 있었고 특히 노인복(31.7%)이나 제복(46.4%)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디자인과 의복구성, 그리고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대해 큰 비중을 두는 연구경향은 특수 의복의 연구자들이 그 주요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을 알게한다.

i)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성과 심미성이 고려된 적합한 의복을 추천함으로써 그들의 복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¹²⁾.

ii) 특수집단은 물론 일반 대중, 교육자 및 학생들에게 의복이 자아증진(Self-enhancement)과 자기표

현(self-expression)을 위한 도구, 그 중에서도 재활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Rehabilitating tool)¹³⁾임을 주지시킨다.

국내의 경우 fit이나 comfort를 더하기 위해 특수원형을 만들거나 기존원형을 개선하려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원형 뿐 아니라 봉제방법의 개선, 의복의 입고 벗음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예를 들어 Velcro fastener, gripper snap closure 같은 부속품 사용)을 개발·활용화하기 위한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특수 의복의 판매(8.9%)나 구매/관리(12.6%)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수 의복이 상품화되어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그 관심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에 관한 연구 중 흥미있는 것은 소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매기구의 편리함이나 서비스제공의 종류, 배달제도에 대해 조사·분석한 연구들이다. 이처럼 사회의 각 집단을 위한 의복의 제작은 물론 이를 상품화하고 또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의류학연구가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특수의복에 관한 연구 중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또 다른 경향은 교육방법이나 교육기재의 개발(9.4%)이다. 신체장애자 학생들에게 의복디자인이나 구성을 가르치기 위한 특수기재나 교육방법을 고안·활용하는 연구들과 다양한 특수집단들을 대상으로 성인교육이나 extension services들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¹⁴⁾. 우리의 경우 사회적여건이 아직 이에까지는 성숙되지 못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ppearance Therapy program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이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이다. 이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나 보호소, 소년원등 각종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외모 개선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 수용도(Social-Acceptance) 또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돕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하나이다¹⁵⁾.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경쟁의식의 심화와 이에 수반되는 정신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Appearance Therapy Program은 의복이 갖는 사회심리적 역할이 지대함을 실증적으로 인식시켜주는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IV-3. 장점 및 개선점

이제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의복에 관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연구경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특수의복분야가 강조해야 할 장점과 보충되어야 할 개선점들을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특수의복을 통해 의류학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장점(Opportunities) :

① 사회복지에의 참여(Participation to the Welfare of Our Society)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집단들, 즉 신체적·정신적 장애인들, 노인들, 특이체형, 임산부, 죄수들, 그 밖의 특수환경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복요구를 만족시킴으로서, 또한 그들의 의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나 수용소의 죄수들에게

있어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의복착용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쉬운 그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사회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의복이 효과적으로 재활을 돕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다¹⁶⁾. 이는 종합과 학이고 응용학문인 의류학이 사회에 이익을 줌으로서 그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김재숙¹⁷⁾의 의견과도 상통한다.

② 전문인으로서의 뚜렷한 Image 전달(Strong Publicity of Accurate Professional Image) :

타인에게 전문인으로서의 뚜렷한 Image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의류학 뿐 아니라 가정학 전체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적극적 활동은 일반 대중에게 의류학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교육 및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 일 것이다.

- i) 특수 집단을 위한 Fashion show¹⁸⁾ ; 기존의 의류학계열의 학과에서 행하고 있는 fashion show는 일반 상업체의 선전용 행사와 그 내용 및 구성이 거의 다를 바 없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각 특수 집단의 복지를 위한 교육적이고도 학구적인 내용의 fashion show는 의류학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ii) 특수집단을 위한 Extention Services ;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나 세미나 상담을 통해 이들 특수집단의 의복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 iii) 간행물 발간 ; 특수집단이 필요로 하는 의복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정보나 각종 연구보고서의 간행.
- iv)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 ;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특수의복을 주제로 한 각종 프로젝트나 연구에 모델, 자료제공자, 평가자, 재정적 후원자의 자격으로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들 활동에는 지방언론의 참여 및 후원이 Image-making에 큰 역할을 함으로 적극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③ 다른 학문과의 협동작업(Interdisciplinary Approach)

교육과정이나 연구논문들의 분석을 통해 특수의복의 경우 학문간의 협동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학문과의 협동작업은 의류학 연구자로 하여금 보다 넓고 깊은 관점(Wide-and-deep Viewpoints), 과학적 연구방법론, 새로운 소재나 혁신적 기술들에 접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project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⁹⁾.

④ 기업 및 산업체와의 산학협동(Share with Business and Industry)

미국 Cornell 대학이나 Houston 대학의 교과과정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수교육연구는 교수 및 학생들이 기업이나 산업체와 산학협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design idea나 technique들에 관해 관련 의류산업체나 특수교육을 다루는 다른 업체의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학교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소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한다. 나아가 학생들은 자신들의 idea를 실제 생산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종종 산업체에서는 학생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고 자신들의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행정부서와 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⑤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가능성(New Job-Market)

의류학을 위시한 가정학의 경우 졸업후 진로가 큰 과제가 되어왔다. 특수교육분야는 졸업 후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더해줄 수 있다. 가능한 직종으로서는 :

- i) 각종 기능복 디자이너 (Functional Clothing Designer Position) ; 사회적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sports가 애호되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인 바 신체를 보호하고 기능이 뛰어난 의복이 중시되면서 이들이 상품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함께 이들 의복은 Design하는 의류학졸업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일과 봉급에 대해 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²⁰⁾. 이들 직업의 가능성은 얼마나 진지하게 개척하느냐에 달려 있다.
- ii) Clothing Consultant ; 각종 특수집단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의욕을 가진 Consultant가 필요하다.
- iii) 재활원이나 병원의 상담자나 교사(Therapist

or Vocational Teacher in Rehabilitation Center) ;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이들 분야에 상당수 인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재활원이나 병원에서 가정학전공자들을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필요로 하고 있었다²¹⁾.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여건이 아직 이에까지는 성숙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개척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

2) 개선점(Improvements)

① 협동과목 및 선수과목의 강화(Strengthen Supporting Courses/Prerequisites)

특수교육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특수집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주제도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협동과목 및 선수과목의 범위도 확대되고 그 내용도 보다 전문적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연구에는 그 장애부위에 따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의학계통의 과목들과 인체계측학, 인간공학, 생리학, 기구학, 심리학등이 협동과목으로 필요할 것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심리학, 정신분석, 심리치료, 정신위생등의 협동과목이, 운동애호가를 위한 운동복은 스포츠심리, 인간공학, 생리학, 기구학, 각도학등이 주변과학으로서 도움을 줄 것이다. 특수교육에서는 기능성외에도 심미적고려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위해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법들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이론과 구성계열과목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요한 선수과목들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의복이라 하면 심미적 고려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장애자들의 경우 그들이 의복을 포함한 외모를 통해 투사되는 자신의 image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른 어떤 의복보다도 심미적 고려가 중시되어야 한다²²⁾.

② 공동연구체제의 강화(Intensify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Jax²³⁾와 김재숙²⁴⁾은 다른 분야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종합과학으로서의 의류학의 특성을 살릴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이 의류학에 있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의복디자인을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연결되어오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분야들과 협동연구를 시도하는데 있다²⁵⁾.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

는 실례(Exemples), 참고문헌, 참고자료 및 소재, 기법이나 기술등과 같은 많은 background information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 학생들은 교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다른 분야에서 행하고 있는 team-project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작업은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기관 즉 일반 연구기관, 정부기관, 산업체, 기업, 병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다른 학문과의 공동연구체제를 통한 효과는 미국 Cornell 대학이나 Houston 대학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교과과정편 참조).

③ 지역사회 참여 유도(Provoke Strong Community Involvement)

지역사회에서 의류학의 Identity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류학분야의 연구결과의 가치를 대중 및 산업체, 정책담당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전달과정도 중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⁶⁾. 특수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여러 방안은 장점편에서 논의되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갖는다. 즉 주민이 의류학교육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를 줄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할 때 교육은 비로소 보람있고 흥미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의 교과과정 구성과 프로젝트의 운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학교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단지역의 학교는 지역사회 공단의 작업환경에 알맞는 기술공들의 작업복들을 연구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관광지의 학교는 각종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 적합한 의복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예는 미국 Houston 대학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NASA의 우주선요원들의 의복(Space-Suits)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의류학의 연구가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인식되면 의류학의 과제들 즉 산학협

동연구, 연구비지원, 전문인으로서의 image 전달, 졸업후 진로문제 등에 많은 개선이 따라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④ 연구비지원의 확립(Secure Research Funds)

연구비지원의 확립문제는 가정학의 약점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의류학의 경우 특수복연구에 있어 충분한 연구비를 확립하는 것은 Textile Science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자가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Trial-and-Error)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비지원은 학교 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 정부부서, 산업체, 기업, 병원등 협동체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 이 지원은 연구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도(예를 들어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나 연구 프로젝트) 필요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Cornell 대학의 경우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지역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되면 이의 부수적 효과로서 연구비지원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V. 결 론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복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변화해가는 사회적요구와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노력중의 하나이다. 특수복을 의류학교육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류학의 교육적 프로그램과 각 연구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특수복이 지닌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여 보았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함께 조사하여 우리나라 특수복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한국의 경우 특수복을 다루는 교과과정은 이제 시작단계로, 개설하고 있는 학교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은 선수과목으로 디자인 및 구성능력을 필요로하고 group 단위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특수외복 교과목들은 몇가지 공통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강의주제나 과제내용이 다양하고 인체계측학, 인간공학, 심리학, 사회학등 협동과목이 강화되어 있었으며 평가를 중시하여 교수들과 산업체, 병원, 정부부서의 담당자들 앞에서 완성된 과제물의 발표를 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의류학 교수진이 평가한 바 특수외복 교과과정의 특기사항으로는, 첫째, 디자인 및 구성계열의 과목들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둘째, 특수집단이 가진 의복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목적을 두며, 셋째, 협동적 그룹 프로젝트의 형식을 통해 협동작업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게되며, 넷째, 다른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재나 전문적 이론, Technique 등의 정보를 얻게되며, 다섯째, 고객—대—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제작하고, 여섯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이다.

2. 특수외복을 주제로 한 연구경향은 미국과 한국 공통으로 신체장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각종 uniform 및 방호용·의복들에 대한 연구였다. 연구주제별로 보면 디자인 및 구성분야를 주제로 한 것이 압도적이었고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을 다룬 연구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특수외복의 상품화에 따른 마케팅의 연구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및 관리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의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기재개발도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수외복이 의류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정립되기 위하여는 그 지닌바 장점들이 강화되고 취약점들이 개선·보강되어야 한다. 장점으로서 특수집단이 갖는 의복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고 여러 학술적 행사 및 프로젝트운영을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뚜렷한 Image를 대중에게 전달 할 수 있으며, 다른 학문과의 공동연구나 산·학협동체제를 통해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유망성이 있다는 점이다. 개선·보강되어야 할 점으로서는 먼

저 교과과정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강의 및 프로젝트의 대상이나 주제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협동과목이나 선수과목이 강화되어야 하겠고, 평가를 통한 feedback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및 그들의 적극적 참여도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fashion show나 전시회, 정보지 발행, 학생 및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여, 지방언론의 활용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방향에 대하여는 연구주제 및 대상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체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과 안락함이 강조된 각종 작업복, 운동복과 방호용 의복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디자인 및 구성, 사회심리적 측면에 치중하던 단계를 넘어 특수외복의 상품화에 따라 판매나 구매,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한 연구비지원의 확립을 위해서도 다른 학문이나, 정부기관, 산업체,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현재 특수외복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교과목운영이나 연구대상 및 주제 선정, idea나 방법의 제시에 있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기대하고 후속연구로서 특수집단의 각 대상 및 주제를 가지고 실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Horm, Marilyn J., "Home Economics: a Recitation of Defini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1981, pp. 19-23.
2. Rudd, Nancy A., *Textiles and Clothing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Outloo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2.
3. 김재숙, "산업사회와 의류학" 대한가정학회지, 제 26권 4호 p. 177-180, 1988.
4. Hoffman, Adeline M., "Clothing for the Handicapped, the Aged, and Other people with Special Needs. Springfield, ILL.: Chares C. Thomas Co., 1979.
5. Draffen, Nancy A., *Textiles and Clothin Gradu-*

- ate Program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4.
6. Radnofsky, Matthew, "Space Age Influence on Earthbound functional Clothing Design,"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8, pp. 72-78.
 7. Watkins, Susan, M., "Functional Clothing; New Direction for Textiles and Clothing, ACPTC Porceedings, 1976, pp. 109-114.
 8. Kaddel, Kay, "Utilization of Anthropometrics in Clothing Design for the Disabled and Elderly,"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6, pp. 13-15.
 9. Feather, B.L., Martin, B.B., and Miller, W.R., "Attitudes toward Clothing and Self-Concept of Physically Handicapped and Able-Bodied University Men and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July 1979, pp. 234-240.
 10. Hoffman, Adcline M., op. Cit., pp. 69-93.
 11. Radnofsky, Matthew and Crippen, Kaye, "Systems Approach to Functional Clothing Design; Design of Bra for marathon Runners,"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8, pp. 175-177.
 12. Mead, Majorie, Clothing for People with Physical handicaps. North Central Regional Extention Publication 101, ILLinois 1177.
 13. Hoffman, Adeline M., op. Cit. pp. 69-93.
 14. Mead, Majorie, op. Cit.
 15. Eyestone, Virginia G., The Use of Fashion Therapy as Adjunctive Therapy in the Rehabilitation of Psychiatric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Logan, 1965.
 16. Quinn, M.D., "Design with Limits," *Journal of Home Economics*, Fall 1978, pp. 34-36.
 17. 김재숙, op. Cit. pp. 177-180.
 18. Steinhaus, Nancy H., and Richardson, G.R., "A Fashion Special" *Journal of Home Economics*, Winter 1982, pp. 37-38.
 19. Douty, Helen, I., "Garment Engineering: A Theoretical Approach,"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5. pp. 158-159.
 20. Watkins, Susan M., "New Careers for Home Economics; Designing Fuctional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Now. 1974, pp. 33-38.
 21. Knoll, Cecelia S., and Schwab, Lois O., "The outlook for Home Economists in Rehabilit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Jan. 1974, pp. 39-42.
 22. Quinn, M.D., "Design with Limits,"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5, pp. 18-21.
 23. Jax, J.A., "Home Economics; A Perspective for the Fu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Summer 1985, pp. 22-27.
 24. 김재숙, op. Cit. pp. 177-180.
 25. Watkins, Susan M., (1974). op. Cit.
 26. 김재숙, op. Cit. pp. 177-180.
 27. Yule, Jamie B., "Expanding Our Conc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May 1975, pp. 21-24.
 28. Ahrbeck, Ellen H. and Friend, Shirly E., "Clothing-An Asset or Liability? Designing for Specialized Needs," *Rehabilitation Literature*, Vol. 37, No. 10, Oct, 1976, pp. 295-296.
-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2~1986.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2~1986,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Thesis, Dissertation Abstracts.) 1972~1985.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CPTC Combined Proceedings, 1972~1985.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Cornell University Bulletin 1988~1989.
 Drexel University Bullectin 1989.
 The university of Houston Bulletin 1988~1989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ulletin 1985~1986.
 대한가정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ome Economics) 1978~1988.
 한국의류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 Textiles) 1978~1988.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교수연구논문집, "생활과학연구" 1982~1988.
 연세대학교 교수연구논문집 "연세논총" 1981~1988.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논문총 1976~1988.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1983~1988.
 학위논문
 임현규, 지체부자유자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남녀중학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배창연, 지체장애자의 의복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wheelchair 사용자의 활동복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4.
 태향원, 환자복에 관한 연구—특수환자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이준옥, 노년기여성을 위한 윈피스트레스 기본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 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임지민.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정희용.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김경민. 노년기 여성의 Bodice 원형 연구—60세 이상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이효진. 노년기 여성의 Slacks 제작을 위한 원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권영희. 노년기 여성을 위한 Skirt 원형 연구, 서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곽혜진. 임부복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 Skirt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석명은. 소아병동의 Uniform에 관한 연구—디자인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박은주. 직장남성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 및 직업만족도와 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김원숙. 직업영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4.
- 김의영. 농약산포용 방제복의 필요성 및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김숙진. 태권도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홍성애. 검도복과 호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